

여성문학사 서술의 필요성에 관하여

이경하*

1. 머리말
2. 여성문학사와 성별 정체성의 관계
3. 자국문학사의 보완과 극복
 - 3.1. 자료의 발굴·재평가의 성과
 - 3.2. 자국문학사 재인식을 위한 문제제기
4. 맺음말

*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국문초록

20세기 후반은 전 세계적으로 문학사 서술을 둘러싸고 전혀 상반된 경향이 두드러졌던 시기다. 한편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과 탈구조주의의 유행 속에서 문학사 서술을 하나의 날조된 허구로 비판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여성, 흑인, 소수민족 등 주변부 집단의 문학사 서술이 그 어느 때보다 열기를 띠었던 것이다. 한국에서는 아직 본격적인 여성문학사 서술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여성문학 연구가 본격화됨에 따라 그러한 움직임이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다. 본고는 문학사 서술의 의의에 대한 회의적인 지적 풍토 속에서 여성문학사 서술이 어떤 의의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이론적인 검토이다. 필자는 학문 내적·외적 차원에서 여성문학사 서술의 의의를 논증하고자 하였다.

본격적인 여성문학사 및 여성사 서술은 그 출발단계에서 여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유럽의 경우 여성해방운동이라는 외적 요인에 의해 추동된 바 컸다. 문학사 서술은 그 집단의 정체성 형성 및 강화에 기여함으로써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데, 70년대 영미의 여성문학전통론에서는 여성해방이라는 목적의식이 강하게 작용했던 만큼 그 역기능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여성문학의 과거를 역사화하는 작업이 문학사 서술의 역기능에 대한 경계 위에서 이루어진다면, 여전히 여성해방운동의 차원에서 실질적인 의의를 가질 수 있다.

문학연구 내적으로 볼 때, 여성문학사 서술은 기존의 자국문학사 서술을 보완·극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20세기 후반에 활발히 이루어진 국내외 여성문학사 서술은 기존의 자국문학사 서술이 누락시킨 여성문학의 과거를 복원함으로써 이를 보완하는 기능을 담당했다. 또한 여성문학사에 대한 이해가 심화될수록 기존의 자국문학사 서술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보다 잘 드러나게 되었다. 문학의 범주, 문학의 가치평가 기준, 문학사의 시대구분 등 문학사 서술에서 핵심이 되는 문제들이 여성문학사의 관점에서 재론되기에 이른 것이다. 여성문학사 서술은 자국문학사를 보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한계를 극복하는 데 궁극적인 의의가 있다.

핵심어 : 여성문학사, 자국문학사, 역사서술, 성별 정체성

1. 머리말

유럽에서 문학사 서술은 19세기에 대단한 인기와 호황을 누리다가 20세기 전반에 이르러 러시아 형식주의와 미국의 신비평이 유행하면서 점차 인기를 잃고 퇴조하기 시작했다고 한다.¹⁾ 20세기 후반에는 탈구조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의 유행 속에 이른바 거대담론의 종말이 이야기되고, 이는 곧 문학사의 종말로 보였다. 문학사라는 학문영역 혹은 글쓰기 형태는 진화론적 발전사관에 입각하여 근대적 시간의식을 구현하는 '가공된 허구'였다는 비판 아래, 문학사 서술의 의의가 부정되었던 것이다. 태생적으로 '근대적 산물'인 문학사는²⁾ 20세기말 근대학문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의 흐름 속에서 그 위상이 대단히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새로운' 한국문학사 서술을 기획하며 그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서 중요하게 지적된 과제도 "문학사와 근대주의의 결속을 어느 정도 해체할 수 있을 것인가"³⁾ 하는 문제였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20세기 후반에 '문학사의 부흥'이 이야기된다. 소수민족, 흑인, 여성, 동성애자 등 주변부집단의 문학사 서술이 흥기하고 있는 것이다.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여성문학사 서술이 반드시 20세기 후반의 새로운 현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70년대 이후 페미니즘의 유행과 함께 여성문학사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확장된 것만은 틀림없어 보인다. 90년대 이후 영미에서는 여성문학사 서술이 다른 어느 곳보다 활

1) David Perkins, "The Present State of the Discussion", *Is Literary History Possible?*, Baltimore and London :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2, pp.1~8.

2) 임형택, 「한국문학사의 서술방향과 체계」, 『한국문학사 어떻게 쓸 것인가』(토지문화재단 위음, 한길사, 2001), p.29.

3) 고미숙, 「고전문학사 시대구분에 관한 몇 가지 제언」, 『한국문학사 어떻게 쓸 것인가』(토지문화재단 위음, 한길사, 2001), p.138.

4) Perkins, Op. cit., p.9.

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⁵⁾ 유럽 각 국의 '여성 글쓰기 역사'도 꾸준히 간행되고 있다.⁶⁾ 일본에서도 최근 여성문학사 서술이 새롭게 이루어졌다.⁷⁾ 한국에서는 고전문학의 경우 여성작가문학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가 한 차례 이루어졌고,⁸⁾ 근대문학 분야에서도 여성문학사 서술을 위한 준비작업이 여러 각도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⁹⁾

이처럼 문학사 서술의 근간이 되는 근대주의에 대한 비판, 민족이나 국가와 같은 추상적 공동체에 기반한 자국문학사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는

-
- 5) Marion Shaw ed., *An Introduction to Women's Writing : from the Middle Ages to the Present Day*, London ; New York: Prentice Hall, 1998. ; Shari Benstock, Suzanne Ferriss and Susanne Woods eds., *A Handbook of Literary Feminisms*,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이밖에 캠브리지 대학출판부에서 수년에 걸쳐 간행되고 있는 '영국의 여성과 문학' 시리즈가 있다. Carol M. Meale ed., *Women and Literature in Britain, 1150~1500*, Cambridge ; New York, NY, USA: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 Helen Wilcox ed., *Women and Literature in Britain, 1500~1700*,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 Vivien Jones ed., *Women and Literature in Britain, 1700~1800*, Cambridge, U.K. ;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 Joanne Shattock ed., *Women and Literature in Britain, 1800~1900*, Cambridge, UK ;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 6) 역시 캠브리지 대학출판부에서 간행된 사례를 든다. Sonya Stephens, *A History of Women's Writing in France*,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 Jo Catling ed., *A History of Women's Writing in Germany, Austria and Switzerland*,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 Letizia Panizza and Sharon Wood ed., *A History of Women's Writing in Italy*,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 Adele Marie Barker and Jehanne M. Gheith eds., *A History of Women's Writing in Russia*,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 7) 後藤祥子 編, 『日本女性文學史 : 古典編』(京都 : ミネルヴァ書房, 2003).
- 8) 이혜순 외, 『한국고전여성작가연구』(태학사, 1999), pp.525~582.
- 9) 기존의 근대문학사 서술에서 여성작가들이 배제되어 왔음을 비판하고 여성주의 시각에 의한 여성문학사 서술의 필요성을 제기하거나 갈래별로 여성문학사 서술을 준비하는 작업들이 주목된다.(정영자, 『한국페미니즘문학연구』(좋은날, 1999), pp.222~224. ; 임금복, 『현대여성소설의 페미니즘 정신사』(세미, 2000), pp.36~37. ; 이상경, 『한국근대여성문학사론』(소명출판, 2002), pp.3~4. ; 이은정·김현자, 『한국현대여성문학사-시』, 『한국시학연구』 5(2001).)

가운데, 다른 한편에서는 여성이라는 또 다른 추상적 집단을 상징한 문학사 서술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모순된 듯 보이는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문학사를 비롯한 역사서술의 허구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현대의 지적 풍토 속에서 여성문학사를 서술하는 작업은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 여성문학사 서술은 과연 필요하고 의미 있는 작업인가? 이는 혹 '여성문학'이란 카테고리 자체가 여성 스스로를 계도화한다는 혐의를 더욱 부추기는 것은 아닌가?

한국은 여성문학 연구의 역사가 그다지 길지 않고 '일반적' 의미에서 여성문학사 서술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약 10여 년 전부터 여성문학 연구가 본격화됨에 따라 여성문학의 과거를 문학사라는 형태로써 조직화하려는 움직임이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다. 여성문학사 서술의 필요성은 별도의 논의가 필요 없는 하나의 '당위'라고 볼 수도 있지만, 관점에 따라서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로 비춰지기도 한다. 문학사 서술의 의의에 대한 회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여성문학사 서술이 어떤 의의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본고에서 논의할 사항이다. 원론적인 사항을 다루는 만큼, 논의의 범위를 국내에 한정하지 않고 여성문학사 서술의 선례가 있는 외국의 상황을 널리 참고하기로 한다.

2. 여성문학사와 성별 정체성의 관계

여성문학사 서술은 여성의 '과거'를 역사서술이라는 일정한 글쓰기 형태로 재현해내는 방식이다. 세계 각 국에서 여성문학사 서술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 기원을 탐색하기란 용이하지 않지만, 적어도 20세기에 이루어진 여성문학사 서술은 여성인식의 사회적 변화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여성에 대한 사회의 인식, 여성 자신의 스스로에 대한 인식에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 변화가 여성해방운동이

란 형태로 가시화되는 긴 여정 속에 여성문학사 서술이 자리하고 있다.

영미의 여성문학사 서술은 아마도 페미니즘 문학 연구가 이미지비평에서 전통비평으로 옮겨가면서¹⁰⁾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모어즈의 『여성문학인들』을 비롯하여 70년대에 이루어진 여성문학전통에 대한 일련의 탐색은¹¹⁾ 19세기 소설 갈래에 치중했다는 한계가 뚜렷하기는 했으나¹²⁾ 20세기 여성문학사 서술의 힘찬 출발점이었다. 그럴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제2의 물결’로 불리는 유럽의 여성해방운동과 그동안 쌓아온 페미니즘 문학비평의 성과가 놓여 있었다.

謝無量的 『中國婦女文學史』를 비롯하여 20세기 초에 이루어진 중국여성문학사 서술의 서문에서도 남녀의 불평등한 관계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 있다. 謝無量에 따르면, 上世에는 남녀가 동등했고, 中世에는 남자를 귀하게 여기고 여자를 천하게 여기다가, 近世에 이르러 다시 남녀평등이 제창되는 것이 남녀지위의 역사적 변화과정이다. 그리고는 이제 세월이 좀더 흐르면 남녀가 모든 분야에서 동등해지는 때가 오리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다.¹³⁾ 구체적인 여성해방운동이나 학문제도로서의 여성학과의 직접적인 영향관계는 좀더 살펴볼 일이나, 일찍이 동아시아에서도 여성의 ‘과

10) Ruth Robbins, *Literary Feminisms*, New York : St. Martin's Press, 2000, pp.70~71.

11) Ellen Moers, *Literary Women : The Great Writers*,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85(reprint). 이 책이 처음 출판된 해는 1976년이다. : Elaine Showalter, *A Literature of Their Own : British Women Novelists from Bronte to Lessing*, Princeton, New Jersey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7. : Nina Baym, *Woman's Fiction : A Guide to Novels by and about Women in America, 1820~70*, Urbana, Chicago :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93(the 2nd). 초판은 1978년에 나왔다. : Sandra M. Gilbert and Susan Gubar, *The Madwoman in the Attic : The Woman Writer and the Nineteenth-Century Literary Imagination*,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1979.

12) Margaret J.M. Ezell, *Writing Women's Literary History*, Baltimore, MD :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3, pp.20~21.

13) 謝無量, 『中國婦女文學史』, 民國叢書 第二編 60(上海 : 上海書店, 1990), pp.1~2. 이 책은 1933년판의 영인본이다.

거'에 대한 관심이 여성문학사의 형태로 구체화되었던¹⁴⁾ 배경에는 여성문 제에 대한 인식 전환의 큰 움직임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온당할 것 같다.

여성문학사와 '여성' 및 '역사서술'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를 공유하는 여성사 서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유럽 및 북부아메리카 여성사 연구의 현 단계를 점검하기 위해 모인 여성사 연구자들은 유럽의 각 국에서 여성사 연구의 첫 단계가 제도권 바깥에서 여성운동이라는 형태로 시작되었음을 증언하고 있다. 예컨대 프랑스에서 여성사 연구는 60~70년대 여성해방운동이라는 사회적 배경, 여성학의 성립과 발전, 그에 대한 사회적·대중적 요구, 시대적 격변기 등의 영향 아래에서 진행되었다고 하는데,¹⁵⁾ 이러한 경향은 영미를 비롯한 서구유럽의 경우에도 대체로 동일하다.¹⁶⁾ 한국에서도 본격적인 여성사 연구의 개화는 70~80년대에 유행하기 시작한 여성해방론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¹⁷⁾

여성문학사 또는 여성사 서술이 여성운동의 일환으로 기능하는 것은 역사서술과 집단 정체성의 일반적인 관계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체성(identity)이란 사회학적으로 정의하자면, "자기 자신이 무엇이며, 무엇

14) 20세기 초에 출간된 중국여성문학사로 謝無量, 앞의 책, 1932년에 출판된 梁乙眞의 『中國婦女文學史綱』(民國叢書 第二編 60, 上海: 上海書店, 1990), 1930년에 출판된 譚正璧의 『中國女性的文學生活』 등을 꼽을 수 있다. 譚正璧은 이 책의 증보작업을 계속하여 제4판인 『中國女性文學史話』(天津: 百花文藝出版社, 1984)를 냈다. 초기의 일본여성문학사로는 久松潛一 編, 『日本女流文學史: 古代·中世篇』(東京: 同文書院, 1969). ; 吉田精一 編, 『日本女流文學史: 近世·近代篇』(東京: 同文書院, 1969). 등이 있다.

15) Arlette Farge, "Method and Effects of Women's History", *Writing Women's History*(Michelle Perrot and Alain Paire eds.), Oxford, Uk: Cambridge, Mass., USA: Blackwell, 1992, pp.10~11.

16) Karen Offen, Ruth Roach Pierson, and Jane Rendall eds., *Writing Women's History: International Perspectives*, Houndmills, Basingstoke, Hampshire: Macmillan, 1991, p.xi.

17) 최숙경, 「한국 여성사연구의 성립과 과제」, 『한국사서민강좌』, 15(일조각, 1994). ;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연구실, 「총론: 한국여성사의 이해」, 『우리 여성의 역사』(청년사, 1999) 참조.

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의 집합” 혹은 “사회적 주체가 자신을 하나의 동일한 주체로 인지하게 되는 일종의 ‘공통감각’”¹⁸⁾이다. 개인 또는 집단의 정체성 형성은 주체 내적으로 과거와 현재 사이의 동일성, 주체 외적으로 타자와의 이질성을 인식하는 과정인 것이다.

개인 또는 집단의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 사회적 주체의 ‘과거’와 ‘현재’ 사이의 동일성(identity)에 대한 인식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홍길동’이라 불리는 사람이 30년 전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을 동일한 주체로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상이한 모습과 상이한 태도들 사이에 동일성의 등가선을 설치하고 고정”¹⁹⁾하는 정체성에 말미암는다. 개인 또는 집단의 ‘과거’와 ‘현재’ 사이에 존재하는 변화와 차이의 지점은 억제되고 동일성과 연속성이 강조되는 것이 정체성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한 개인이 자서전을 쓰는 행위는 곧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동일한 주체로 간주하는 정체성에 기반한다. 민족이나 국가, 인종, 젠더 등 각 집단의 역사서술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현재 자신의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정당화하기 위해 ‘조상’을 필요로 한다.²⁰⁾ 모든 개인과 집단은 자신의 ‘뿌리’를 과거 속에서 찾으려 하고 그러한 경향이 구체적으로 표출되는 방식 중에 하나가 개인 또는 집단의 역사서술인 것이다. 요컨대 역사서술이란 개인과 집단이 자신의 정체성을 창조해 내는 방식의 하나다.

여성운동의 차원에서 비롯된 여성문학사 및 여성사 서술의 초기단계에서는 ‘여성에 대한 기억 회복’이라는 목적이 특별히 가시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성사 담론에는 기억상실증, 망각, 침묵 등의 비유가 흔히 눈에 띄는데, 이는 종래 역사서술의 전반적 경향인 ‘여성의 부재’를 뜻한다.

18) 이진경, 「근대적 주체와 정체성」, 『경제와 사회』, 1997년 가을호(통권 제35호), pp.8~9.

19) 위의 글, p.15.

20) 케이스 켄킨스, 최용찬 역,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혜안, 2002), p.71.

Farge의 회고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여성사 연구의 첫 단계, 즉 1970년대 여성사 연구에서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망각된 역사', '잃어버린 기억'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었다고 한다.²¹⁾ 1970년대 여성해방운동의 열기 속에서, '여성에게도 역사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선대 여성들의 존재를 회미한 과거의 편린들 속에서 찾아내기 위해, 여성사 연구에 대한 요구가 증대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여성사 연구는 역사가 지워버린 어머니와 자매들에 대한 기억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하는 물음에 답하는 과정으로 이해되었다.

정체성은 이처럼 주체 내부의 동일성을 강조하는 한편, 타자와의 '구별 짓기'와 '차별화'를 통해서 형성된다. 집단 정체성은 한 집단이 다른 집단과 갈등·대립관계에 있을 때 보다 부각되고 강화되는 것이다.²²⁾ 민족 정체성은 이민족들이 지배와 피지배 관계로 갈등하던 19세기에 두드러졌고, 제국주의 국가들이 자국의 문학사 서술에 가장 열을 올린 시기도 19세기였다. 20세기 중반 이후, 피식민의 경험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국학'의 이름으로 역사서술에 골몰했던 것 역시 집단 정체성과 역사서술의 친연성을 대변한다.

20세기 중반 이후에 본격화된 여성운동은 대표적인 정체성의 정치이다. '여성'이란 추상적 공동체가 성별 정체성에 기반하여 '남성'이란 집단과의 차이에 주목하고 여기서 파생된 억압을 문제삼는 사회운동이 그것인데,²³⁾ 여기서 '여성' 집단 내부의 시간적·공간적 차이는 축소되고 동일성이 강조되기 마련이다. 그 시간적 동일성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방식이 곧 여성

21) Farge, Op. cit., p.12.

22) 신광영, 「계급과 정체성의 정치」, 『경제와 사회』, 1997년 가을호(통권 제35호), pp.36~38.

23) 장미경은 '정체성의 정치'를 "특정 정체성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정체성을 중심으로 그것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사회구조의 모순을 드러내고 해결하려는 사회운동"이라고 정의했다.(장미경, 『페미니즘의 이론과 정치』(문화과학사, 1999), p.85)

사·여성문학사 서술인 것이다.

그런데 Perkins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문학사 서술이 담당하는 실질적 기능 가운데 하나는 집단공동체의 정체성 형성 및 강화를 지원하는 것이다.²⁴⁾ 19세기 근대민족국가의 자국문학사 서술이 그러했듯이, 20세기 후반에 이루어지는 소수민족, 여성, 노동자 등의 문학사 서술도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문학사를 비롯한 역사 서술이 담당하는 역기능이다.

역사 서술에서 흔히 제기되는 '전통'을 화두로 삼아 보자. 전통의 수립은 그 집단의 문화적 중요성을 부각시키기는 중요한 작업으로, 사회 내에서 현실적으로 그 집단의 정치적 힘을 고양하는 문제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²⁵⁾ 대내외적으로 집단의 문화적 자주성과 가치를 고양하는 것은 문학사 서술의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스코틀랜드와 웨일스의 문학사 서술은 영국에 맞서 주체성을 고양하는 중요한 방편이 된다.²⁶⁾ 광복 이후에 국문학사 서술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열의도 한민족의 문화적 자주성을 드높이는 작업의 일환이었다.

문제는 문학사를 비롯한 역사 서술에서 수립된 전통이 '창출된 전통'이라는 데 있다. 여기서 창출이란 '창조'와 '날조'의 의미를 포함한다. 전통에 관한 모든 담론은 그럴 듯한 과거와 현재 사이의 연속성을 세우는 과정에서 전통을 창조할 뿐 아니라 날조한다는 것이다.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 과거와 현재의 동일성이 강조된다고 했는데, 전통 수립의 과정에서 형성되는 '역사적인 과거와의 연속성'은 대개 인위적인 것이다.²⁷⁾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문학사는 '과거에 대한 유용한 허구'일 뿐이며,²⁸⁾ "역사는 이제 민족적 신화, 민족적 儀式, 민족 정치와 분리되어야"²⁹⁾ 하는 것이다.

24) Perkins, Op. cit., p.180.

25) Ibid., pp.180~181.

26) 조동일, 『지방문학사 : 연구의 방향과 과제』(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p.203.

27) 에릭 홉스봄, 최석영 역, 『전통의 날조와 창조』(서경문화사, 1995), pp.37~38.

28) Perkins, Op. cit., p.182.

영미의 초기 여성문학사 서술들에서 유독 '전통'의 문제가 자주 거론되었던 것은³⁰⁾ 우연이 아닌 듯하다. '우리에게도 역사적 전통이 있다'는 주장에 이어 '그 전통은 유의미한 것이다'라는 논리는 집단 정체성에 기반한 역사서술의 보편적인 언술 방식으로 보인다.³¹⁾ 역사와 전통의 가치에 대한 과부하는 집단 정체성이 특별히 강조되고 그들의 일체감이 요구되는 시기에 더욱 강화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근대민족국가 형성기나 정체성의 정치가 사회운동의 형태로 두드러지는 시기에는 그 집단 공동체의 현실적 요구와 목적의식이 뚜렷한 만큼, 역사 및 문학사 서술의 '허구적' 측면이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것이다.

특정 집단의 '과거'를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 문학사가 종종 그들 문학의 과거를 왜곡하고 전통을 날조한다는 혐의에서 여성문학사 서술도 그리 자유로와 보이지 않는다.³²⁾ 그렇다면 여성문학사 서술을 비롯하여 20세기 후반에 활발해진 소수집단의 문학사는 단순히 19세기 자국문학사의 전철을 다시 밟고 있는 것일까? 여성문학사를 별도로 서술한다는 것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오히려 유해한 작업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여성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소수집단에 속해 왔으며 현재에도 여전히 그러하다는 상황판단에 동의한다면, 성별 정체성에 기반한 여성문학사 서술의 현실적 의의를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을 듯하다. 역사서술은 여전히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범주로서 "미래에 대한 열정적인 희망의 표현"³³⁾이다. 종속집단의 내러티브 역사가 지배집단의 그것을 모방하는 측면이 없지 않았으나, 그 두 가지가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님

29) 에릭 홉스봄, 강성호 옮김, 『역사론』(민음사, 2002), p.28.

30) Ezell, Op. cit., p.19.

31) Perkins, Op. cit., p.181.

32) 기존의 자국문학사 서술이 노정했던 '내러티브적' 한계를 70년대 영미의 여성 문학전통론이 되밟았던 양상에 대해서는 줄고, 『여성/문학/사』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5(2002), pp.247~249. 참조.

33) 리타 펠스키, 김영찬·심진경 공역, 『근대성과 페미니즘』(거름, 1998), pp.266~7.

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여성과 같은 소수집단은 오랫동안 주변화되었던 바로 그 속성 때문에 스스로를 비판·수정하기에 보다 용이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³⁴⁾ 여성문학전통론은 물론 페미니즘의 제반 이론이 자체 비판과 수정의 과정을 거쳐 초기의 경직성에서 탈피하고 있음이 이를 입증한다.

여성문학사 서술이 여성 정체성의 '소수성'에서 출발함은 약점인 동시에 강점일 수 있다. "다수자의 지배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치와 활동을 생성하는", "권력과 대결하는 변이의 힘"이야말로 '소수성'의 본질인 것이다.³⁵⁾ 여성문학사가 기존의 자국문학사 서술이 노정한 근대주의를 비판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효과적인 장으로 기능할 수 있음은 그 때문이다. 3장에서는 문학연구 내부로 눈을 돌려 이에 대해 논의해 보자.

3. 자국문학사의 보완과 극복

여성문학사 서술이 단지 여성운동이라는 현실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순수하게' 학문적인 차원에서도 충분한 의의를 갖는다는 것은 그동안 여성문학사 연구가 이룩한 성과를 통해서도 입증된다. 첫째, 종래의 자국문학사에서 '부재하던' 여성작가들과 그들의 작품이 여성문학사 서술을 통해 역사 속에 자리 매김 되었다. 둘째, 다양한 여성문학전통에 대한 '기억'을 복원함으로써 종래 자국문학사 서술의 오류를 바로잡고 자국문학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가능성을 고민하게 되었다. 잊혀졌던 여성작가와 작품을 복원하는 것은 비단 자국문학사의 한 귀퉁이를 채우는 데 그치지 않고,

34) Linda Hutcheon and Mario J. Valdes eds., *Rethinking Literary History : A Dialogue on Theory*, Oxford :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p.13.

35) 이진경, 앞의 글, p.17.

문학사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여 종래 자국문학사 서술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는 단초를 마련하는 의의를 갖는 것이다.

3.1. 자료의 발굴·재평가의 성과

여성작가들 가운데 오늘날 아무도 그들의 문학사적 위상을 의심하지 않는 ‘대가’들조차 그 존재가 과거의 자국문학사 서술에서 제외되고 평가절하 되었던 사례는 매우 흔하다. 예컨대 제인 오스틴이나 해리엇 비처 스토투의 소설은 1970년대 중엽까지 일반적인 영문학선집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모어즈는 문학작품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작가의 성별에 따른 성차별이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혐의가 짙다고 하면서, 오스틴조차 누락된 문학선집을 통해서 영문학에 접근하는 학생들은 영문학사에 대한 심각한 오해와 편견을 갖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³⁶⁾ 문학선집이 문학의 ‘과거’에 관한 표준적인 입문서 구실을 넘어서 일반인들에게 ‘상식’과 ‘교양’의 형성에 얼마나 막강한 힘을 행사하는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불과 30여 년 전 영미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오스틴은 이제 비영어권 국가에서도 과거의 대표적인 여성소설가로 기억되고 있다.

활동 당시에는 대단한 인기를 누렸어도 후대 자국문학사 서술에서는 누락되었다가 20세기 중반 이후 여성문학사 서술을 통해 새롭게 되살아나고 있는 사례도 적지 않다. 영국에서 그 예를 찾는다면, 아프라 벤, 엘리자 헤이우드 등 17세기 후반~18세기 초에 활동했던 일군의 여성작가들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소설은 당시에 대단한 인기를 끌었음에도 불구하고 18세기 후반에 광범위하게 진행된 소설의 정전 형성 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었던 대표적인 예이다. 당시 소설선집을 펴내고 영향력이 컸던 대표적인 비평가들은 벤 등의 작품을 선집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한다.³⁷⁾

36) Moers, Op. cit., p.xii.

37) Ros Ballaster, *Seductive Forms : Women's Amatory Fiction from 1684 to*

이들 여성작가들의 초기 연애소설은 영국 소설사의 계보에서 전반적으로 배제되었고, 남성중심의 문단에서 벤의 이름은 외설과 동의어로 간주되었다.³⁸⁾ 그러나 20세기 후반의 여성문학사 서술은 벤을 최초의 직업적 여성 작가로서, 18세기 서간체 소설을 비롯한 영국소설의 창시에 기여한 작가로서 그 문학사적 위상을 평가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³⁹⁾

19세기 미국의 '여성픽션'(Woman's Fiction)도 남성중심의 자국문학사에서 누락되었다가 여성문학사 서술을 통해 발굴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여성픽션'은 1820년에서 1870년 사이에 출판된 일정한 패턴을 가진 여성작가소설을 일컫는데, 모든 역경을 딛고 안정된 가정을 얻는 자립적인 여주인공의 성공담이 핵심 테마이다.⁴⁰⁾ '여성픽션'은 특히 1850~60년대에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는데, 미 당대 최고의 흥행물이었던 수잔 워너의 소설 『넓고 넓은 세계』는 바로 '베스트셀러'라는 개념을 유발한 작품이라고 한다.⁴¹⁾ 이처럼 '여성픽션'은 당대에 엄청난 인기를 누렸지만 20세기 비평가들에게 비문학으로 간주되어 오랫동안 영문학사에서 배제되었다.⁴²⁾ 그렇게 역사에서 지워졌던 여성문학전통이 여성문학사 서술을 통해 복원되어 왔다.

멀리 갈 것 없이, 한국의 경우를 보자. 한국여성문학의 '과거'가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은 고전문학과 현대문학 연구자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여성작가 및 작품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조차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그나마 부분적으로 소개된 경우에는 남성중심적 시각으로 왜곡되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1740,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pp.198~199.

38) Ibid., pp.204~205.

39) Benstock, Op. cit., p.29.

40) Baym, Op. cit., p.ix. '여성픽션'의 개념은 Baym이 당시 여성작가 48명의 작품 130권을 대상으로 도출해 낸 것이다.

41) Ibid., pp.ix~xi.

42) Ibid., p.xiii.

것이다.⁴³⁾ 한국에서는 아직 본격적인 여성문학사 서술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지만, 최근 10여 년 간 고전과 현대 양편에서 모두 여성문학연구가 활발해짐에 따라, 종래 자국문학사에서 지위졌던 여성문학의 과거가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다.

예컨대 나혜석에 대한 문학사적 평가의 시대적 변화는 한국근대여성문학사 연구가 그간 이룩한 성과의 일면을 대변한다. 이른바 ‘여류문학 제1세대’에 관한 70년대의 평가와 그 중 대표적 인물인 나혜석에 대한 약 30년 후의 재평가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은 결코 작지 않다.

○ 두 번째로, 우리가 비판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많은 풍문을 남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남성작가 혹은 기자들의 호기심의 작용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들에겐 별로 논의될 작품이 없는 것이다. 그들은 작품보다 활자화되는 이름이 문제였고, 여류라는 회소가치였다. 어떤 가치 있는 작품을 썼느냐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거나, 작품으로 썼다는 사실이 문제였던 것이다. 이름을 내고 이름을 내어 준다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다. 여기에서 문학의 가치를 운운하기까지는 불가능한 까닭이 잠겨있는 것이다.⁴⁴⁾

○ 자전적 소설 「경희」(1918)가 발굴되어 한국 근대문학사에서 자기 위치를 정립하기 이전까지 문인으로서 나혜석은 「이혼고백장」으로 대표되었다. (중략) 그렇지만 「이혼고백장」 이전에도 나혜석은 이미 「모(母) 된 감상기(感想記)」·「부처간(夫妻間)의 문답」 같이 결혼한 여성으로서 자기경험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글들을 발표했으며, 사회적 비난을 받은 「이혼고백장」 이후에도 계속 의연하게 「신생활에 들면서」·「이성간의 우정」처럼 이혼한 여성의 입장을 드러내는 글들을 발표했다. (중략) 나혜석이 지속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글 쓰기를 하게 된 추동력은 그러한 현실적인 필요 이상의 것이었다. 그것은 여성의 고유한 체험을 공적인 논의의 장으로 끌어내야 한다는 책무감이었다.⁴⁵⁾

43) 이러한 경향은 근대문학사 서술에서 더욱 뚜렷한 현상으로 보인다. 정영자, 위의 책, pp.222~224. ; 임금복, 위의 책, pp.36~37. 참조.

44) 김윤식, 『한국문학사논고』(법문사, 1973), p.239.

45) 이상경, 위의 책, pp.14~15.

이른바 '여류문학 제1세대'의 문학사적 위상이 '여류라는 희소가치' 정도도 평가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70년대까지 한국문학사 연구의 한계였다고 할 것이다. '작품 없는 작가'로 알려졌던 나혜석 등을 말 그대로 '작가'로서 대접하고 문학사적 위상을 새롭게 평가할 수 있게 된 것은 새로운 자료의 발굴뿐만 아니라 기존 자료에 대한 재해석·재평가에 기인한다. 예전에는 나혜석의 특이한 삶의 여정과 그녀에 대한 풍문을 강화하는 근거에 불과했던 「이혼고백장」이나 「母 된 감상기」와 같은 글이 이제 "여성의 글쓰기는 여성의 체험을 공유하고 공론화하는 것"이라는 나혜석 여성문학론⁴⁶⁾의 실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종래 남성중심의 한국근대문학사에서 언급할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던 '잡다한 글'이 20세기 초 여성문학이 이룩한 한 정점으로 역사 속에 복원되기에 이른 것이다.

기존 자료에 대한 해석의 새로움은 말할 것도 없지만, 새로운 자료의 발굴도 어떤 의미에서는 연구 관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근대문학사에서 최초의 여성작가소설이라 할 수 있는 나혜석의 처녀작 「부부」,⁴⁷⁾ 최초의 근대 여성비평가 임순득⁴⁸⁾과 같은 새로운 작품과 작가의 발굴은 여성문학사를 양적으로 풍요하게 할 뿐 아니라, 여성작가들을 문학사 내에 확실히 자리 매김 하는 데 주요한 기반이 된다.⁴⁹⁾ 최근에 소개된바 15세기에 소례왕후가 諺書로써 불교옹호의 뜻을 펴고 16세기 중반에 인성왕후가 인종의 行狀修撰을 위해 諺文行錄을 지었던 사실들은 조선전기 여성의 국문 글쓰기 역사를 풍부하게 하는 전거이다.⁵⁰⁾ 자료의 발굴이나 재평가는

46) 위의 책, p.14.

47) 서정자, 「나혜석의 처녀작 「夫婦」에 대하여」, 『여성문학연구』 창간호(한국여성문학학회, 1999).

48) 서정자, 「최초의 여성문학 평론가 임순득론 : 특히 그의 페미니즘 문학비평을 중심으로」, 『청파문학』 16(숙대국문과, 1990). ; 이상경, 「임순득, 혹은 여성문학사의 재구성」, 위의 책.

49) 『여성문학연구』(한국여성문학학회 간행)는 창간호에서부터 '자료'편을 별도로 마련하여, 새로 발굴하였거나 학계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여성문학작품들을 소개하고 있다.

문학사를 다시 쓰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이다. 여성문학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망각된 여성문학사의 면면을 새롭게 발굴하고 결국 문학사를 다시 쓰게 하는 추동력이 된다.

3.2. 자국문학사 재인식을 위한 문제제기

여성문학사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많은 여성작가의 존재를 새롭게 발굴하고 재평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문학사 인식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 그것은 종래 문학작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온당했는가 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제기라는 점에서, 이른바 '여성문제'에는 관심이 없는 연구자들도 더 이상 내 관심사가 아니라는 말로써 이를 완전히 외면할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여성문학사 서술의 의의는 단지 여성해방운동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전통의 창출에 그치지 않는 것이다.

19세기 미국에서 크게 유행했던 '여성픽션'을 본격적으로 연구하여 이를 영문학사에 자리 매김 하는 데 크게 공헌한 바 있는 베임이 이 연구를 통해 제기한 문제는 바로 '위대한 고전'의 근거였다.

○ 솔직히 고백하자면, 이들 책에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긴 했지만 제인 오스틴이나 조지 엘리엇 같은 숨은 작가를 발견하거나 『주홍글자』와 나란히 놓을 만한 책은 단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훌륭한 미국 문학 작품을 선정하는 데 적용되는 "순수한" 문학적 기준이 필연적으로 남성적인 것을 좋아하는 (중략) 편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믿음을 버릴 수 없다. (중략) 이 소설들 가운데 어떤 것도 위대한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지만, 나는 적어도 그것들의 내용을 심각하게 다룸으로써 그러한 편향을 수정하는 일을 하고 싶다. 그리고 지금은 바로 (중략) 염예를 얻고 있는 특정한 미국의 고전들이 위대하다고 불려온 근거를 재검토해야 할 시기이다.⁵¹⁾

50) 줄고, 『15~16세기 왕후의 국문글쓰기에 관한 문헌적 고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7(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3).

베임은 이 연구를 통해 ‘여성픽션’의 문학적 우수성을 강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반적으로 위대하다고 간주되는 문학 고전의 선정 기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이 문제는 최근 몇 년간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정전’ 비판의 핵심이다. 여성픽션과 같은 여성영문학전통에 대한 탐색은 단지 여성문학의 역사를 복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영문학사 전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단초가 된다.

주지하듯, 문학적 가치 또는 문학성이란 개념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문학사에서 정전 또는 고전을 선정하는 확실한 기준처럼 오랫동안 행세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정전비판에 따르면, 어떤 작품이 문학사에서 고전의 반열에 오르는 것은 그 작품 자체의 내적 가치에 의해서라기보다 특정한 환경에 의해 ‘구성된’ 것이다. 문학작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작품의 내적인 자질에만 의거하지 않고 지배층의 이념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영문학사에서 정전으로 간주되었던 작품들이 백인우월주의, 엘리트중심주의, 남성중심주의의 가치를 대변하는 경향이 크다는 비판은 대체로 동의할 수 있다.⁵²⁾ 여기서 여성문학의 전통을 탐색하는 일은 어떤 의미에서 ‘대항정전’의 수립을 모색하는 과정인 것이다.⁵³⁾ 서구 유럽에서 오랫동안 통용되었던 협의의 문학 개념이 구술문화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는 변화에 여성문학사 연구가 기여한 바 적지 않다.⁵⁴⁾

여성문학사에 대한 연구가 집적되면서 종래 자국문학사 서술의 오류로 지적한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문학사 시대구분에 관한 것이다. 여성문학사의 관점에서 미국문학사 시대구분에 대한 비판을 주제로 한 단행본이 출간된 바 있는데,⁵⁵⁾ 여기에 실린 논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여성작가 개

51) Baym, Op. cit., pp.14~15.

52) 송무, 『영문학에 대한 반성 : 영문학의 정당성과 정전문제에 대하여』(민음사, 1997).

53) 위의 책, pp.179~188.

54) Hutcheon, Op. cit., p.8.

인 혹은 집단이 오랫동안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문학사 시대구분의 틀에 도전해서 이를 흔들어 놓고 나아가 다른 것으로 대체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데 있었다. 종전의 미국문학사 서술에서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통용되었던 시대구분법은 근본적으로 백인남성문학의 전통이 지배해 온 문학비평의 성립에서 창조된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들의 비판 요지다.⁵⁶⁾

일반적으로 영미를 비롯한 유럽에서는 문학사의 시대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그다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고, 때문에 한국문학사의 시대구분을 둘러싼 그간의 논쟁은 상대적으로 과도한 ‘집착’으로 비치기도 했다.⁵⁷⁾ 그러나 지난 10여 년 동안 탈구조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 신사학 등의 유행 속에서 역사의 시대구분이란 것은 하나의 ‘날조된 픽션’이란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 영미에서도 자국문학사 시대구분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목도할 수 있다.⁵⁸⁾ 역사에 대한 새로운 철학적 인식을 토대로 하여, 여성문학사에 대한 연구성과들이 종전의 자국문학사 시대구분에 대해 구체적인 비판의 논거로 작용하고 있다.

초기의 여성문학사 서술이 종래 자국문학사가 누락시킨 여성작가와 작품의 존재를 복원하는 데 치중했던 것은 사실이다. 여성문학의 과거를 복원하는 작업은 일차적으로 자국문학사 서술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그

55) Joyce W. Warren and Margaret Dickie eds., *Challenging Boundaries : Gender and Periodization*, Athens : University of Georgia Press, 2000.

56) Warren and Dickie, Op. cit., pp.ix~xxiv.

57) 고미숙, 앞의 글, pp.126~127.

58) Lawrence Besserman ed., *The Challenge of Periodization : Old Paradigms and New Perspectives*, New York : Garland Pub., 1996. ; 문학사 및 역사 일반에서 시대구분의 문제가 여러 학회지에서 기회주체로 다루어지기도 했다. *CLIO : A Journal of Literature, History, and the Philosophy of History* 26, no.2 (1997 Winter) ; *Modern Language Quarterly : A Journal of Literary History* 62, no.4 (2001 December)

러나 여성문학의 역사와 전통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자국문학사 전체에 대한 종전의 이해가 보다 근본적인 면에서 오류가 적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물론 '근대적' 자국문학사 서술에 대한 비판은 20세기 후반의 지적 운동 속에서 여러 방향의 연구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여성문학사 연구가 담당할 역할을 과소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요컨대, 여성문학사 서술의 의의는 여성해방운동이라는 정체성 정치의 실천적 힘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국문학사 서술을 보완하고 나아가 이를 극복하는 데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여성문학전통을 탐색하고 여성문학의 역사를 서술하는 문제는 곧 자국문학사를 인식하는 새로운 시각을 마련하는 문제이며, 궁극적으로 자국문학사를 다시 쓰는 일이다. 단지 알려지지 않았던 여성작가와 작품의 존재를 자국문학사의 빈 틈새에 끼워 넣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국문학사를 이해하는 기본적인 틀을 새롭게 짜는 것이 여성문학사 서술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

4. 맺음말

집단 정체성에 기반한 역사서술이 그 집단의 과거를 과대포장 한다는 혐의를 완전히 벗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역사서술의 허구성만을 확대하여 비판하고 지레 포기하는 것이 대안일 수 없다. 역사가가 과거를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다는 이상은 깨졌다 하더라도, 역사는 항상 '누군가를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⁵⁹⁾ 끊임없이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역사를 새롭게 서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학사 서술이 하나의 '가공된 허구'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역사서술은 "과거에 대한 기억을 조직화하려는 진지한 시도"⁶⁰⁾이기 때문이다.

59) 젠킨스, 위의 책, pp.68~69.

어떤 의미에서 문학사 서술에도 이른바 '분리주의'가 필요한 연구사적 단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체성의 정치가 단계적으로 '동화/차이/연대'의 전략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여성운동과 흑인운동의 역사에서 증명된 바다.⁶¹⁾ 차원이 다르기는 하지만, 문학사 서술의 문제도 전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여성문학이란 범주의 독립과 별도의 여성문학사 서술이 현재 문학연구의 판도 내에서 여성을 다시 주변화시킬 위험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연구자들이 이 문제를 뚜렷이 자각하고 있는 한, 현실적으로 잃을 것보다는 얻을 것이 많다고 본다.

종래 자국문학사의 대개는 애초에 남성문학사 서술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었으며, 결과적으로 남성중심의 문학사를 낳았다. 그 대안이 여성작가들만의 문학사 서술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자국문학사의 남성중심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중간 단계로서, 말 그대로 여성중심의 문학사 서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중간 단계로서의 '여성문학사'는 기존의 자국문학사에서 누락되고 평가절하되었던 여성작가와 작품들을 가능한 많이 역사 속에 복원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는다. 여성에 관한 망각된 기억, 이로 인한 역사의 부제가 영원히 고착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단계의 중요한 임무이다. 그 다음 단계의 문학사, 궁극적인 도달점을 여성문학사 단계와 굳이 구분한다면 '젠더문학사'로 명명할 수 있을까.

□ 참고문헌

- 김윤식, 『한국문학사논고』, 범문사, 1973.
 박성수, 『역사학개론』, 삼영사, 1977.
 서정자, 「최초의 여성문학 평론가 임순득론」, 『청파문학』 16, 1990.
 서정자, 「나혜석의 처녀작 「夫婦」에 대하여」, 『여성문학연구』 창간호, 1999.

60) 박성수, 『역사학개론』(삼영사, 1977), p.30.

61) 장미경, 위의 책, pp.93~95.

송 무, 『영문학에 대한 반성 : 영문학의 정당성과 정전문제에 대하여』, 민음사, 1997.

신광영, 「계급과 정체성의 정치」, 『경제와 사회』, 1997년 가을호(통권 제35호).

이경하, 「‘여성/문학/사’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5, 2002.

이경하, 「15~16세기 왕후의 국문글쓰기에 관한 문헌적 고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7, 2003.

이상경, 『한국근대여성문학사론』, 소명출판, 2002.

이은정·김현자, 「한국현대여성문학사-시」, 『한국시학연구』 5, 2001.

이진경, 「근대적 주체와 정체성」, 『경제와 사회』, 1997년 가을호(통권 제35호).

이혜순 외, 『한국고전여성작가연구』, 태학사, 1999.

임금복, 『현대여성소설의 페미니즘 정신사』, 새미, 2000.

장미경, 『페미니즘의 이론과 정치』, 문화과학사, 1999.

정영자, 『한국페미니즘문학연구』, 좋은날, 1999.

조동일, 『지방문학사 : 연구의 방향과 과제』,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최숙경, 「한국여성사 연구의 성립과 과제」, 『한국사시민강좌』 15, 일조각, 1994.

토지문화재단 엮음, 『한국문학사 어떻게 쓸 것인가』, 한길사, 2001.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연구실, 『우리 여성의 역사』, 청년사, 1999.

리타 펠스키, 김영찬·심진경 공역, 『근대성과 페미니즘』, 거름, 1998.

에릭 홉스봄, 최석영 역, 『전통의 날조와 창조』, 서경문화사, 1995.

에릭 홉스봄, 강성호 역, 『역사론』, 민음사, 2002.

케이스 젠킨스, 최용찬 역,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 해안, 2002.

謝無量, 『中國婦女文學史』, 民國叢書 第二編 60, 上海 : 上海書店, 1990.

Ballaster, Ros, *Seductive Forms : Women's Amatory Fiction from 1684 to 1740*,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Baym, Nina, *Woman's Fiction : A Guide to Novels by and about Women in America, 1820~70*, Urbana, Chicago :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93 (the 2nd)

Benstock, Shari, Suzanne Ferriss and Susanne Woods eds., *A Handbook of Literary Feminisms*,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 Besserman, Lawrence ed., *The Challenge of Periodization : Old Paradigms and New Perspectives*, New York : Garland Pub., 1996.
- Ezell, Margaret J.M., *Writing Women's Literary History*, Baltimore, MD :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3.
- Hutcheon, Linda and Mario J. Valdes eds., *Rethinking Literary History : A Dialogue on Theory*, Oxford :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 Moers, Ellen, *Literary Women : The Great Writers*,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85.
- Offen, Karen, Ruth Roach Pierson, and Jane Rendall eds., *Writing Women's History : International Perspectives*, Houndmills, Basingstoke, Hampshire : Macmillan, 1991.
- Perkins, David, *Is Literary History Possible?*, Baltimore and London :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2.
- Perrot, Michelle and Alain Paire eds., *Writing Women's History*(English edition), Oxford, Uk : Cambridge, Mass., USA : Blackwell, 1992.
- Robbins, Ruth, *Literary Feminisms*, New York : St. Martin's Press, 2000.
- Warren, Joyce W. and Margaret Dickie eds., *Challenging Boundaries : Gender and Periodization*, Athens : University of Georgia Press, 2000.

Abstract

Is Writing Women's Literary History Necessary?

Lee, Kyung-Ha

The concept of 'literary history' appeared with the rise of modern nations in Europe in the 19th century, so a literary history has meant a 'national' literary history so long time. However, we find many different kinds of writing literary history in the late of the 20th century all in the world, which were in pursuit of history and tradition of the marginalized group, such as women, laborers, the African-American, lesbians, and so on.

According to academic criticisms like postmodernism in the late of the 20th century, writing literary history means inventing a 'fiction'. Generally the tradition writing literary history found was regarded as a kind of fabrication. It is a general afunction of historiography that writing literary history of a group exaggerates its past as being a honorable or miserable one. Writing women's literary history would be at the risk of it, too. So then, is it unnecessary or meaningless?

I'd like to say, in this essay, writing women's literary history is still not only necessary but also important, in aspect of not only a movement for the emancipation of women but also an academy, a study of national literary history. Writing women's literary history could play an important part of passing a general limit of writing national literary history.

Key words : women's literary history, national literary history, historiography, identity

■ 위 논문은 2월 15일 투고되어, 3월 31일 심사 완료 후, 4월 15일 게재가 확정되었음.